
2021년 제2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1. 8. ~ 1. 14.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1. 8.	시청률	0.075

【총 평】

‘청년 삶의 질 높인다,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 중장기 방안’은 주거취약계층인 청년층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방송이었다. 특히 지난해 12월23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청년주택 분야를 상세히 다뤘다는 점에서 시의성, 정보성을 살려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청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 중장기 방안을 2025년까지 로드맵을 소개했으며, 청년주택 공급확대 계획을 비롯해 전월세 비용 경감대책, 공공 임대주택, 청년공유주택 등 청년친화형 주거 모델을 제시해 청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알뜰신잡’에서는 ‘통풍 예방과 관리법’에 대해 통풍의 원인, 환자추이, 증상, 치료법, 생활 속 예방법을 소개했다.

【구성 및 내용】

최근 멈출지 모르는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결혼문제와 저출산 문제에 직결되는 국가적 이슈이다. 청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 중장기 방안을 정부의 정책에 맞춰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 중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주거부담 완화 중장기방안’에 대해 다뤘는데 주택공급 규모부터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가게 될 융합특구에 이르기까지 세부사항을 관심도가 높은 순서로 정리한 점이 좋았고 내용과 내용이 서로 연계가 이뤄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했다.

작년 8월 청년기본법이 시행된 이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심의 의결된바 있다. 해당 계획은 일자리, 교육, 참여권리, 주거, 복지문화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었는데 주거 분야를 살펴보았다. 청년들의 생활흐름에 적합한 주거형태를 공급할 계획으로 기숙사를 포함하여 2025년까지 27만 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일터와 쉼터, 삶터가 공존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고시원, 반지하방을 탈피하여 고급스럽게 바꿀 예정이다. 청년특화주택은 7.69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일자리 연계형과 역세권 리모델링형, 기숙사형으로 각각 특색 있게 공급한다.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 중장기방안’을 단순히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닌 일터와 삶 그리고 쉼터를 조화롭게 연결해 디지털 빅뱅의 중심이자 혁신 생태계의 거점으로 키워나간다는 큰 그림 속에서 설명해 정부가 그리고 있는 청년정책의 청사진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그리고 전세와 월세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한 점도 좋았고 청년 친화적인 주거모델을 만들기 위해 설계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청년들에게 직접 듣는다는 점 역시 정책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1. 8.	시청률	0.065

【총 평】

전반적으로 코로나19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리포트들이 많아 훈훈했다. 연탄봉사와 헌혈 캠페인 등은 말 그대로 나보다는 이웃을 위하는 마음이 녹아있는 리포트라 그 속에 메시지들이 담겨 있어 좋았다. 또, 스마트팜에 관한 리포트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어 의미가 있었다. 이 밖에 문화 예술에 관한 리포트들이 이어졌는데 코로나19속 차별화된 전시공간이나 소띠 해를 맞아 다시 보는 이중섭 작품전, 남미의 유명화가 전시회를 준비해 방송했다.

전반적으로 미래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었고, 각자 다른 내용이지만 통일감이 있었고,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으로 잘 선별되었다.

【구성 및 내용】

- 따뜻함을 나뉘요, 거리두기에 힘겨운 연탄 나눔
춘천시 신북읍 연탄봉사 현장을 취재하면서 연탄 봉사에 대한 참여를 독려했다. 연탄 봉사를 받은 어르신이 나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고령의 노인들에게는 코로나19만큼 연탄도 걱정이라고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다.
- 코로나19속 헌혈 줄어, 혈액 수급 비상
신촌 헌혈센터를 찾아 현재 헌혈 실태를 살펴보고 동참의 손길을 강조했다. '기프트카 레드카펫'이라는 이색적인 헌혈 서비스를 소개했고 코로나19로 더욱 비축분이 줄어든 상황에서 나눔과 참여의 의미를 전달해 인상적이었다.
- 4차 산업혁명 최신 기술, 더 똑똑해진 '스마트팜'
ICT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팜을 운영하는 메트로 팜, 오토 팜에 대해 소개했다. 지하 철역내의 LED등을 햇빛으로 이용하여 식물의 영양을 주는 스마트 시스템 팜 농장으로 샐러드 야채를 생산하는 소식 등 스마트 팜에 관해 정보를 제공했다.
- 지역 예술가 돕고 지친 시민 위로하고
지하철역에서 펼쳐지는 미술품 전시회를 소개하고 1석 2조의 기능을 강조했다. 코로나 19로 직접 미술관을 방문할 수 없는 현실을 극복하자는 의도가 돋보였고 예술가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 소띠 해, 다시 태어난 이중섭의 소 그림
서울미술관에서 열린 이중섭 작품전 현장을 취재하고 작품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 남미의 피카소, 오스왈도 과야사민 특별전
오스왈도 과야사민의 작품을 소개하고 작품 속에 담긴 남미의 역사를 소개했다.
- 정책인터뷰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지원에 관해 소개하고 세부적인 사업 내용도 설명했다.

프로그램	길 따라 인문학		
방송일자	2020. 1. 9.	시청률	0.132

【총 평】

기축년 새해맞이 특집 '새로운 의지를 다짐하는 서해'는 충남 서해의 기운과 기개를 받아 코로나19 고통을 이겨내고 2021년 새해 큰 뜻을 품고 활기차게 달리자는 염원을 담았다. 충남 당진, 서산, 홍성 지역에서 나라의 충절과 민족의 얼을 되새기며 아름다운 서해의 문화유산 가치를 통해 선조들의 열정과 서해 풍경을 담아냈다.

서해에서 맞은 새해 해맞이와 당진에서 심훈 작가가 상록수를 집필했던 필경사, 한진포구, 심재경 고택 등을 둘러보면서 상록수의 문학사적 의미를 빼어난 해안가 풍경과 함께 볼 수 있었고, 만해 한용운, 백야 김좌진 장군과 이응로 화백이 태어난 홍성을 둘러볼 수 있었다. 특히, 상록수 정신과 문인들의 문학 정신을 통해 민족 사랑과 시대적 가치를 통해 읽을 수 있었고,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구성 및 내용】

당진, 서산, 홍성지역을 길 따라 걸으며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 했고, 온화하고 서정적인 모습의 일출도 볼 수 있었다.

충남 당진은 바다와 호수와 넓은 들로 둘러싸여 일출과 일몰이 아름다운 고장이자 소설가 심훈 선생의 고향이자 '상록수' 집필지로 유명한 인문학의 고장이다. 농촌 계몽운동의 현장이었던 한진포구를 방문하여 소설 속 인물을 회상하였다. 심훈의 소설 '상록수'가 던진 메시지는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시청자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는 문학인 소개였다.

소설 '상록수' 집필실이었던 충남 당진의 필경사를 통해 붓과 문자로 일제치하 현실과 민족의 힘을 키우고자 한 심훈 선생의 충절을, 조카와 글을 쓴 심훈 기념관, 심훈 선생의 마지막 유작이 된 손기정 선수 우승을 보고 감격해서 쓴 즉흥시 '오오, 조선의 남아여'를 통해 나랑 사랑과 절개를 읽을 수 있었다.

충남 당진에서 심훈 선생을 소개한 후에 농촌 계몽 운동의 연장선상으로 현재 당진 딸기를 생산하고 있는 젊은 농부들을 소개하였고, 천주교 뿌리인 김대건 신부의 솔뫼성지와 신리성지 등을 소개하여 충남 땅의 충절과 절개, 교육 계몽 운동 등을 엿볼 수 있었다.

백제의 유산을 많이 간직한 서산 지역은 가야산을 배경으로 많은 불상의 부처님을 간직한 곳이다. 마애열애삼존상은 부처님의 온화하고 웃는 모습이 부처와의 친근감과 거리감을 없애주고 불심을 돈독하게 하는 모습이었다.

홍성의 특산물인 새우젓을 소개하고 이 곳 출신인 만해 한용운과 김좌진 장군의 업적을 기렸으며 고암 이응노 화백의 생가를 둘러보며 그의 작품세계까지 소개했다.

특히,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더불어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역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새해 화두를 던졌고, 목표가 아닌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새로운 의지를 다짐하게 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1. 9.	시청률	0.032

【총 평】

‘2021 Again 봄날! 평화의 한반도-2021년 남북관계 전망’은 2021년 남북 미래뉴스를 통해 남북관계 전망을 심층 분석했다. 남북관계 숙원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뉴스를 만든 기획이 돋보였다.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통한 한반도 코로나 종식, 2021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 유럽행 남북 철도 사업, 개성공단 재개, 이산가족 감격의 상봉 등은 다수가 관심 갖는 이슈로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구성 및 내용】

‘2021 남북 미래뉴스’라는 인상적인 키워드를 제시하고 새해 소망을 담아내는 구성의 틀을 잘 잡았다. 또, 헤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 인사들의 인터뷰를 소개한 뒤 이야기를 이어간 부분에서 짜임새를 느낄 수 있었다.

‘남북 간 의료협력으로 코로나19 종식’은 현재 통일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고 북한도 절실하게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또 머지않은 시기에 실현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의료시스템이 열악한 북한 주민들의 경우 각종 전염병에 힘들어한다는 점에서 2021년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은 반드시 남북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2021년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 및 남북단일팀 올림픽 출전 가능성, 남북 응원 방법 등을 소개해 재미를 더했다.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공동개최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입장에서 이번 도쿄올림픽에서의 단일팀, 공동입장은 중요한 부분이다.

‘남북철도 타고 유럽으로!’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가져다 줄 경제효과 등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2021년에는 강릉-제진 구간의 철도복원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김정은 위원장도 철도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김여정 부부장도 KTX를 탑승한바 있다. 북한열차는 시속 40km 이하 수준으로 속도가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이후 막혀있는 개성공단이 다시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소망도 전했는데 당장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야할 과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2016년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발표된 이래 각종 대북재제는 물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국민감정도 좋지 못한 상황이다. 과거 남북은 개성공단 유지를 합의한 적이 있으므로 합의정신을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일종의 작은 통일이 된 부분으로서 여론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경협은 물건, 돈의 교류는 물론 문화와 제도 등이 오고가며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이 기약없이 미뤄진 상황이다. 그러나 누구나 상식적으로라도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교류로서 꼭 필요한 것이다.

프로그램	밥보다 법		
방송일자	2020. 1. 10.	시청률	0.052

【총 평】

‘밥보다 법’ 제20회 ‘법을 잘 몰라서 저지르는 범죄들-이런 것도 죄가 되나요?’는 그동안 다루지 못했으나 실생활에 궁금증이 컸던 소재를 속 시원히 풀어줘 수용자 만족도를 끌어 올린 기획이 탁월했다. 특히, 더 받은 거스름돈, 초인종 누른 것이 주거침입, 알바생 CCTV 감시, 길거리 포교행위, 향초 선물 위법, 확찐자 농담이 모욕죄 등을 다뤘는데, 실생활에 자주 접하면서도 그동안 궁금했던 아이টে을 다룬 구성이 소구력을 높였다.

‘밥보다 법’은 실생활에 자주 접하면서도 그동안 궁금했던 아이টে을 다룸으로써 수용자 니즈에 부합하고 법률상식 대중화에 도움을 주었다.

【구성 및 내용】

생활법률 중에서 판단을 내리기 애매모호한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상식을 전했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법한 일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더 많이 받은 거스름돈’에선 사기죄란 고의성이 입증돼야하는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기망행위’와 ‘신의칙(信義則)의 원칙’이란 무엇인지 개념적으로 쉽게 설명해 주의를 환기시킨 점도 좋았다. 반대로 가게 주인의 경우를 들어 더 많이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었다. 금액과 상관없이 법률적으로 볼 때 거스름돈을 받을 당시 더 받는 것을 알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지만 나중에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법적으로 폭 넓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침입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여러 판례를 들어 설명해 법적 상식을 풍부하게 했다. 침입행위는 몸의 일부가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손가락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 이는 거주자의 평온 상태를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편의점 점주가 CCTV로 아르바이트생의 행동을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CCTV의 설치는 제한되어 있는데, 도난이나 범죄예방이 아닌 근로감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포교활동과 관련, 계속적인 포교활동은 위법행위가 아니지만 거부의를 밝혔음에도 계속 강요하면 지속적 괴롭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증 받지 않은 향초와 방향제를 직접 만들어 선물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다. 살생물 제법상 안전성을 확인해야하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3년마다 공인된 기관에 안전성에 대해 시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상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외모 비하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의미가 죄의 유무와 형량결정시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확찐자’라고 놀렸는데 체중이 정말 늘어났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체중이 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1. 10.	시청률	0.034

【총 평】

새해에도 집합금지와 영업금지 등 고단계 제한을 가해도 매일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못지않게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국내 백신 수급 문제와 의문점을 다룬 ‘코로나19 백신 도입 논란, 사실은?’을 방송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접종 그리고 부작용과 수급 문제는 전 세계를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백신 구입 늦장 대응이나 공무원 무능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에 대해 팩트체크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진 ‘코로나19 백신 전쟁, 손 놓은 우리 정부?’, ‘늦장 확보를 덮기 위한 안전성 강조?’, ‘백신 4400만 명분으로 부족하다?’ 등에 대해 꼼꼼하게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접종 그리고 부작용과 수급 문제는 전 세계를 집중시키고 있는 이슈이다. 특정 국가 몇 개국에서 백신 개발을 하고 있지만 효능에 대해서는 다들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의 백신 구입 늦장 대응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까지 매일 쏟아져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가고 있어 PD리포트 이슈 본(本)에서는 팩트체크를 통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 코로나19 백신 전쟁, 손 놓은 우리 정부?

미국과 영국보다 늦은 대응은 했지만 늦은 것은 아니며, 올해 9월쯤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월부터 의료진과 고위험군, 노인 대상 우선 접종 후 하반기부터 일반인에게 접종할 예정이다. 선제적 대응과 예방을 철저히 하면 코로나19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 늦장 확보를 덮기 위한 안전성 강조?

작년 12월 17일 화이자 백신을 맞고 실신한 수간호사 티파니 도버를 보여주면서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정성과 효과 검증, 일반 백신 개발 기간과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간 차이, 정부가 백신 도입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 등을 설명해 의구심을 풀어주었다.

■ 백신 4400만 명분으로 부족하다?

전국민의 85%를 접종할 수 있는 백신 물량을 확보한 정부, 85% 물량 확보만으로도 충분한 이유, 집단면역 효과, 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협력한 백신 개발, 안동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인 백신 생산 시설 등에 대해 알려주었다. 또, 국내에서 추진 중인 백신 생산 시설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확보 경쟁에서 우위 선점 예정,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는 정부의 선점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다.

프로그램	슬기로운 취준생활 일자리센터		
방송일자	2020. 1. 10.	시청률	0.004

【총 평】

슬기로운 취준생활 일자리센터 제20회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운다, 아동콘텐츠 기획자’를 방송해 취준생과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새로운 직업세계와 취업 정보를 제공한 기획이 뛰어났다. ‘그 직종이 궁금하다’, ‘달려라 신입사원’, ‘선배의 취업 꿀 조언’, ‘화상 모의면접’, ‘취준생을 위한 응원 한마디’ 등 다양한 구성이 몰입감을 높였다.

‘화상모의면접’에서는 해당업체 대표가 지원자와의 모의면접 후 평가를 통해 취준생들이 면접시험을 치를 때 유의점,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조언해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 ‘그 직종이 궁금하다’에서는 아동콘텐츠 기획자의 하루 일과를 통해 업무의 특성과 전망을 알 수 있게 구성한 점이 취준생들에게 도움을 줬다. ‘선배의 취업 꿀 조언’에서는 취업3년 차 선배의 합격비법이 상세히 소개돼 취준생들에게 참고사항을 제공했다.

【구성 및 내용】

아동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한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하는 기업 대표와 취업 3년차 사원이 출연해 아동 콘텐츠 기획자에 대한 소개와 실제 일과, 취업비법 등을 소개하고 모의 화상면접을 진행했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깨우는 아동교육 콘텐츠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아동콘텐츠 기획자’가 무슨 일을 하는 직종인지 또 취업하기 위해서 갖춰야할 조건과 자질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오리엔테이션 기회가 되었다. 특히 취업선배가 조리 있게 전한 자신의 일에 대한 포부 그리고 합격을 위한 비법은 많은 참고가 되었다. ‘아동용 콘텐츠 기획’은 IT기술에 대한 이해와 창의력이 요구되는 일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트렌드와 잘 맞는 직업분야로 아동 교육 콘텐츠 기획 및 작가 섭외, 스토리보드 작성 등을 담당한다.

‘선배의 취업 꿀 조언’에서는 취업3년차 선배의 합격비법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실패로 인해 낙담하기보다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돌아보며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고, 해당 직종과 관련한 제품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제작했다고 소개했다. 또, 아동콘텐츠 기획자는 작가, 편집자, 디자이너와의 협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므로 타인과의 소통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취업 3년차 선배가 아동 관련 학과와 무관한 비전공자로 아동콘텐츠 기획에 도전해서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좋은 자극이 되었고, ‘취업비법’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차례 취업에 실패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로 활용했다고 했는데 귀담아들을 만한 내용이었다.

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꿈에 도전하라”는 취업선배와 기업 대표의 따뜻한 조언을 담은 ‘취준생을 위한 응원 한마디’도 실의에 빠진 취준생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1. 10.	시청률	0.025

【총 평】

충북 괴산군 사리면 칠보산 중턱에 자리 잡은 서예가 부부의 전통 한옥 사랑을 고스란히 그려낸 '한옥을 옮기다, 전통을 입다'를 방송했다. 사람과 자연을 품고, 역사를 담아낸 한옥의 매력과 새로움을 발견한 주인공을 잘 담아냈고, 주인공의 한옥 철학을 제대로 관찰하여 보여준 방송이라 매우 산뜻했다. 자연과 어우러지고 한옥이라는 공간에서 위안을 받으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농촌생활을 소개했다.

탁수 선수에서 찾집 주인으로, 다시 한옥의 매력에 푹 빠져 500평 한옥 세 채를 소유한 부인의 한옥에 대한 매력담, 한옥을 이루는 나무나 굴뚝의 연기마저도 한옥 정신을 보여준다는 남편의 한옥 사랑이 프로그램에 켜켜이 담겨 흥미로웠다. 공간의 아름다움과 숨결을 '한옥'이라는 틀에서 들여다 본 점에서 우수한 기획이었다.

【구성 및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부부 소개와 한옥 소개, 한옥에서의 일상과 자녀 이야기, 달력 제조, 한옥 보수, 바둑수업과 지인 초대 등으로 구성했다.

충북 괴산군 칠보산의 풍경으로 시작해서 차를 마시며 아침을 시작하는 유유자적한 부부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었다. 부부가 아침에 차를 마시면서 대화로서 하루를 시작하는 한옥의 귀촌살이가 멋들어지게 와 닿았고 차를 마시는 장면이 설원의 한옥 풍경과도 절묘하게 잘 어울렸다. 설경 속의 한옥은 환상속의 집을 보는 것처럼 아름다웠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모습도 요즘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었는데, 주인공이 불을 지피면서 살아야 집 전체에 방습과 방충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어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주인공이 한 문짝을 손질하거나 돌담을 손보거나 하면서도 내내 한옥의 매력을 어필해주어 불편함이 오히려 매력처럼 느껴졌다. 주인공의 딸이 등장해 20대가 들려주는 한옥의 매력이 참신했고, 성년례를 치른 경험과 자신의 꿈이 한학자라는 것에서 보통 젊은이들과는 달라 눈길을 끌었다.

한옥의 건축 비화부터 한옥의 매력까지 다양하게 언급되었고, 훈훈한 부자간의 모습도 보기 좋았다. 주인공이 바둑협회를 창립했던 일화와, 바둑수업 강사, 바둑교실의 풍경과 지인을 초대해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소개했다. 또, 주인공이 달력을 제조하는 모습과 직접 서예를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 '함께 동행'이라는 글씨를 쓰는 장면에서 그 속에 담긴 거리두기의 의미도 무척 의미심장해 감동적이었다.

부부의 20대 자녀들도 결혼을 하면 꼭 한옥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을 언급했는데 시청하는 시청자 입장에서 한옥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게 만들었다. 마무리에서 한옥을 '사람과 자연을 모두 품은 공간',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징검돌'로 묘사했는데 앞에서 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잘 함축했다.